



스웨덴 반려동물보험시장 특징 및 현황

김유미 연구원

요약

스웨덴은 반려동물보험을 최초로 출시한 국가로 반려동물보험 가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임.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가입에 호의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동물복지 시스템과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반려동물보험시장은 주요 보험회사가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스타트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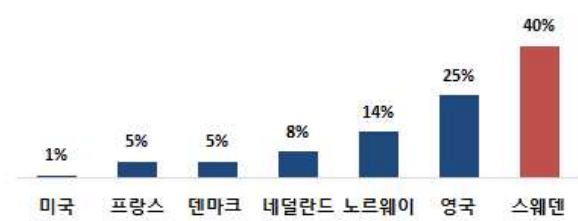
- 스웨덴은 반려동물보험을 최초로 출시한 국가로, 당시에는 가축만을 대상으로 보장하였으나 1924년 개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출시하며 현재의 반려동물보험 형태로 발전함¹⁾
 - 1890년 Länsförsäkrings(현 아그리아; Agria)의 설립자였던 Claes Virgin이 말, 소와 같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보험상품을 개발함
 - 그로부터 30년 후인 1924년 보험회사 아그리아는 개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하였고, 1972년에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함
- 스웨덴의 반려동물보험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보험가입률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고, 특히 대부분 반려견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은 최대 동물복지 국가 중 하나로 2022년 기준 약 100만 마리의 개와 140만 마리의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반려동물보험가입이 활성화되어 있음(그림 1) 참조)
 - 보험회사 아그리아는 2021년 기준 반려견의 90%, 반려묘의 50%가 반려동물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반려견의 경우 연간 보험료는 평균 536달러(약 70만 원) 수준임²⁾
 - 스웨덴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팬데믹 기간 반려동물 입양 수 증가, 보험요율 인상, 클레임 증가 등의 영향으로³⁾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9.3% 성장하였음(그림 2) 참조)

1) Wikipedia, "Pet insurance"

2) VIN News(2019. 10. 2), "Pet insurance for all: Sweden's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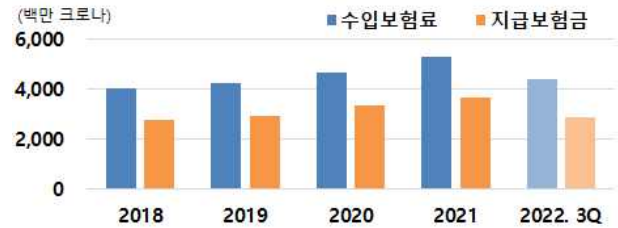
3) Ken Research(2023. 1. 10), "Increasing number of pet and animal lovers, rise in per capita incomes and new product innovations are expected to drive the growth of Sweden Pet Insurance Market"

〈그림 1〉 주요국 반려동물보험 침투율(Penetration rate)



자료: EY(2021. 11. 8), "Pet insurance: market activity, trends and key issues"

〈그림 2〉 스웨덴 반려동물보험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 추이



주: 2022년 3분기 값은 누적 수치임
자료: 스웨덴 통계청(SCB)

- 스웨덴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국가 중 하나로 국민 사회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수요 증가는 보험가입으로 이어져 매년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음
 - 스웨덴의 의료복지는 고복지-고부담 구조로 대다수 국민이 높은 과세 부담을 감수함으로써 자원 확보를 가능케 하고 국민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이러한 국민적 정서는 보험료 부담에 대한 합의를 상대적으로 쉽게 이룰 수 있게 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발생에 대한 대비와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수요 증가는 보험가입으로 이어져 매년 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음⁴⁾
- 또한 스웨덴은 최대의 반려동물 복지국가로 체계적인 동물복지 시스템과 법률을 통해 반려동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스웨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반려동물의 ID를 농무부(Board of Agriculture)에 등록해야 하고 반려동물 사망이나 보호자 변경, 이름 변경 시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산책 의무, 자유로운 활동 보장, 적절한 치료, 수술 관련 제한 등을 동물복지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함
 - 스웨덴의 경우 반려동물 표준수가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네트워크와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품질 의료장비 사용 및 정교한 진단·치료가 가능해지고 수의학의 높은 임상 기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스웨덴 반려동물보험시장은 보험회사 아그리아(Agria)와 포크삼(Folksam)이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려동물 예방의료 및 부가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음
 - 보험회사 아그리아는 고객관계관리(CRM)을 기반으로 한 상품 운용을 통해 스웨덴 반려동물보험시장의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국, 아일랜드 등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 디지털 반려동물보험 스타트업 래시(Lassie)는 예방의료에 중점을 둔 반려동물 건강보험회사로 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⁵⁾

4) POC(2017. 3. 22), "Why Does Sweden Have the Highest Level of Pet Health Insurance?"

5) EU-Startups(2023. 1. 31), "10 Skyrocketing Swedish startups to watch in 2023!"